

제1759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11월 4일 (음력 9월 14일) 토요일

The Kwangju Ilbo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News

- 정계개편 주도권 싸움 ②
- 中검사 조선대서 박사학위 ③
- 사무직, 결절종 환자 급증 ④
- 최경주 올스타전 1R 14위 ⑯



Jeolla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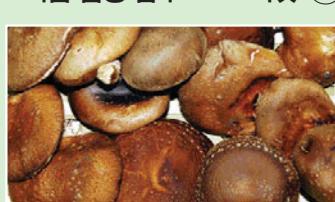
- 그 사람-장지량前공참총장 ⑦

Entertainment

- 가수들 뮤지컬 대이동 ⑧
- 충무로영화 '속편비람'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표고버섯 ⑯



## “마지막 간판쟁이로 남고싶어요”

■ 광주극장 미술담당 박태규씨

### “나는 가장 큰 캔버스 가진 행복한 화가”

지난 1일 광주극장 입구에서는 영화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가로 3m 80cm, 세로 2m 10cm의 거대한 화폭 앞에 선 박태규(42)씨의 손 끝에서 배창호 감독의 영화 ‘길’의 한 장면이 그대로 재연된 것.

몇 년 전만해도 전국의 모든 극장에는 사람마다 직접 그린 간판이 내걸렸었다. 관객들은 간판에 그려진 멋진 주인공이 ‘닮았어, 안 닮았어’ 수다를 떨며 극장에 들어서곤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컴퓨터 실사 출력이 일반화되면서 사람이 직접 그리는 간판을 거는 극장은 거의 사라졌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손으로 그린 간판을 거는 광주극장 역시 경영 상태를 고려해 1~2년에 한 번 꼴로 간판을 교체하고 있어 박씨의 이번 간판 작업은 영화 ‘거북이가 난다’ 이후 1년 여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판쟁이’ 역시 맥이 끊겼다. 지금,

박씨는 전국에서 ‘간판쟁이’라는 명함을 놓지 않고 있는 몇 안되는 사람 중 하나다.

호남대 미대를 졸업한 박씨가 화가라는 명함 대신 간판쟁이를 선택한 것은 ‘자렇게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동경 때문이었다. 그립도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간판 일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다.

주위에서는 대학까지 나왔으면서 일주일이나 버틸 수 있겠느냐며 비아냥거렸다. 첫 벌을 내딛은 1991년 이후 2~3년 동안은 허드렛일만 맡겨졌지만 박씨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결국 광주시내 7개 극장의 간판을 그릴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90년대 중반에는 일주일 동안 7~8편의 영화 간판을 그릴 때도 있을 정도였다.

‘이목구비가 평범한 한국 배우들이 그리기 힘든 편이에요. 또 B4 크기의 영화 포스터를 거대한 간판으로 읽기는 것도 쉽지 않



박태규씨가 배창호 감독의 영화 ‘길’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다. 섬세한 그의 붓꽃을 거친 영화 속 등장인물의 표정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은 작업이죠. 그때는 지금의 6배 되는 대형 간판을 그리기도 했으니까요.”

박씨는 이제 개인 작품을 통해 간판 그림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미술과 영화 간판을 접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 지난 2002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5.18을 다룬 ‘광주 탈출’이라는 가상의 영화 간판을 선보였고, 같은 해에는 ‘마지막 간판쟁이-박태규

전’이라는 개인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다.

영화 간판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가장 쉽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는 “그릴 수 있는 장면 마련된다면 언제까지라도 ‘간판쟁이’로 남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 용적·건폐율 높여 분양가 낮춘다

### 정부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 등에서 용적률·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와 입주자가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각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일부 신도시에서 폐쇄된 환경을 위한 지나친 저밀도 개발, 기반시설 비용의 분양가 전가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신도시의 용적률·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현재 150% 안팎인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200~250% 정도로 높이고 개발밀도를 ha당 150명 안팎까지 조정하더라도 분양가는 5~8%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의 관측이다.

국가는 부담해야 할 공공택지 밖 광역교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는 국가가 부담되며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 해당지역 입주자와 국가가 적절한 분담방안을 강구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업계는 사업시행자의 분담비율을 50~60% 낮추고 자자체와 정부가 나머지를 분담하면 분양가가 가구당 1천만~2천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금융 분야의 건전성

## “영어교사 되려면 영어논술 봐야”

2009년 임용시험부터

실용영어 중심의 학교 영어교육을 위해 2009년 영어교사 임용시험부터 영어논술, 영어듣기, 영어수업 실기 시험이 도입된다.

대입 논술고사는 학교교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와 유형으로 실시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른 대학별 예시문항이 내년 3월까지 공개된다.

또한 수업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대우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교원 근무평가 과정에 동료교사도 참여하게 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영어교육 혁신방안과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7년부터 매년 1천명씩 2015년까지 1만명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화연수를 실시,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능력인증 제도 2009년 이후 도입돼 교육과정과 연계한 말하기 듣기 쓰기 등 실용영어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교育부는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과 관련, 승진 평정 때 2년 간의 점수를 반영하던 것을 10년으로 늘려 경력보다 근무성적의 반영비중을 높이고 근무평정 비중을 현재 교장 50%, 교감 50%에서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로 바꾸기로 했다. /연합뉴스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 까스활명수 같은 남자!

까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완도 까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드러운 까스활명수·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김동완  
김동완